

조승희 사건에 대한 목회 상담학적 소고: 개인과 환경에 대한 신학적, 심리학적 분석

하 재 성 교수
(Ph.D., 고려신학대학원)

국문초록

2007년 초에 발생한 조승희 사건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학교 총기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충격과 상처를 남겼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조승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며, 무엇이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였는가? 조승희는 어릴 때부터 매우 내성적인 성격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한 이민 1.5세대로서 미국에서 교육을 받으며 자랐다. 버지니아 텍의 비극 뒤에는 조승희의 개인적 성격과 소수계 이민자로서 겪어야 했던 자신과 가정의 매우 특별한 환경이 자리하고 있다. 그에게는 감추어지고 농축된 분노가 있었으며, 그것은 이미 십대 청소년기부터 조금씩 분출되기 시작했다.

그의 정신의학적 진단에는 몇 가지 증상들이 함께 나타난다. 먼저 불안의 일종으로서 사회 공포증 증상이 나타난다. 소인과 환경의 결합으로 나타나는 이 증상은 청소년기에 처음 나타나는 것으로 우울증이 동반되고 사회적 환경에서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다른 한편 조승희는 반사회적 성격장애의 형태를 보이기도 한다. 남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차가우며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일에 관심이 갖는 것이 이 장애의 특징이다. 그러나 이런 내적 증상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감정적 소외가 그의 문제를 심화시켰다. 신학적으로 그는 이런 환경의 희생자이면서 동시에 개인의 자유를 남용하여 남을 희생시킨 잘못이 있다. 비록 이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했지만, 이 사건은 복음주의 상담에 있어서 개인, 가정, 사회의 치유가 얼마나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중심단어 : 조승희, 공격성, 사회공포증, 반사회적 성격 장애, 목회 신학

I. 여는 글

2007년 4월 16일 미국 버지니아 텍 사건은 한국계 미국 영주권자인 조승희에 의해 일어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학교 총기 학살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이 사건으로 생명을 잃은 사람은 32명이며, 부상당한 사람은 25명에 이른다. 실제로 조승희 사건이 일어났을 때 200여명에 이르는 이라크 사람들이 가공할 연쇄폭발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온통 조승희 사건과 그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 집중조명을 하였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그에 관한 기사들은 일간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¹⁾ 더구나 이 사건이 한국계의 젊은 영주권자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기에 한국인들이 받은 인상은 남달랐다.

우선 우리는 이 사건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많은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말로 할 수 없는 슬픔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조승희에 대한 어떤 심리적 재구성이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이 이렇게 큰 범죄를 합리화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해야 한다. 이 사건이야말로 결코 일어나지 않았으면 참으로 좋을 뿐 했던 사건이다. 그러나 이미 미국과 세계 사람들의 가슴을 깊이 훑고 지나간 이 사건이 이제는 단순히 그 사건이 있었다는 과거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개인적, 사회적 사건으로서의 흔적들을 더듬으면서 이 시대의 문제와 정신적, 영적 위치를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조승희 사건에 대해 다음 몇 가지의 질문들을 다루고 있다. 이 사건이 전적으로 조승희 개인에 의해 계획하고 저질러진 사건으로 단정 지을 때, 조승희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그리고 그런 개인적 문제를 가능하게 했던 주변 요인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인가? 아울러 이런 심리 사회적 요인들과 참극을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끝으로 이 사건이 지적하고 있는 사회적 함의는 어떤 것인가? 이에 따라 필자는 이 사건을 둘러싼 조승희에 대한 개인적 배경과 심리적 특징을 먼저 다루고, 반사회적 성격 장애(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와 사회 공포증(Social

Phobia)사이에서 가능한 심리적 진단을 모색할 것이다. 이어서 성장 과정에 있어서 한편 사회 문화적 피해자로서의 조승희가 치밀한 사전 모의(premeditation)로 무고한 생명들을 학살한 회대의 살인자가 되어버린 과정에 있어서 신학적 관점에서의 피해자로서 그리고 동시에 엄연한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조명할 것이다.

이 연구의 한계는 분명하다. 당사자인 조승희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의 심리를 완전하게 재현하기에는 자료가 많이 부족하다. 다만 이 사건을 둘러싼 매스컴의 다양한 보도들을 토대로 그의 경험을 부분적으로 재구성하고, 그것을 토대로 심리학적 진단과 분석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특히 가족 구성원의 심리 역동(psychodynamics) 혹은 가족 체계의 이해를 위한 1차적 인터뷰나 상담이 불가능 하므로 앞으로 만일 그런 면밀한 원자료가 등장할 경우 매스컴의 보도와 가설에 의한 몇몇 조건들은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다행히 온라인 백과사전인 Wikipedia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조승희 사건의 전모를 설명하고 있어서 이 사건의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기에 유익하다.²⁾ 어떤 면에서 이 사건은 한 번 발생한 단순한 범죄 사건이 아니라 동일한 조건 하에서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는 개인적, 사회적 가능성들을 내포하고 있기에 복음주의적 신학과 상담학적 관점에서도 면밀한 연구와 분석이 반드시 다루어져야 한다.

II. 펴는 글

1. 조승희의 자기 정체성: “?”

조승희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먼저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지극히 내성적으로 보이는 한 개인 속에 얼마만큼의 분노의 감정이 농축되어 녹아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조승희는 어릴 때부터 인간관계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이어서 가족들 사이에서도 전혀 말이 없었고, 대학에서 함께 생활

한 기숙사의 룸메이트들조차도 Yes, 혹은 No라는 말 밖에 거의 들은 것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침묵 속에 있는 그의 마음을 그 누구도 읽거나 헤아리지 못하였고, 심지어 그의 가족들조차도 그 내면에 숨어있는 이야기들을 조금도 눈치 채지 못하였다. 현장에서 초기에 발견된 메모 즉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You caused me to do this)” 라는 조승희의 말은 마치 그가 개인적인 연애 관계에서 생긴 어려움 때문에 이 일을 저지른 것처럼 생각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에게는 깊은 관계의 연인이라고 부를만한 여성이 없었고, 다만 자신이 어떤 여성들을 스토킹하며 뒤따라 다녔던 흔적이 있었을 뿐이었다.

따라서 사람들의 관심은 다시 조승희에게 있어서 “너(You)가 누구인지에 모아졌다. 그가 언급한 “돈 많은 애들(rich kids)”, “사기꾼(deceitful charlatans),” 이나 “퇴폐 (debauchery)” 등 그가 표면적을 남긴 단어들은 자신의 몸에 새긴 이스마엘 액스 (Ismail's axe)와 더불어 자본주의 사회의 빈부차이와 도덕적 타락에 대한 자신의 분노를 암시해 주고 있다.³⁾ 그의 분노는 어떤 면에서 한 개인이 아닌 세상을 향해 있었고, 영문학도로서 적은 그 자신의 희곡 Richard McBeef나 Mr. Brownstone 등에는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에 대한 살인 의도를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그는 자신을 상처 입은 피해자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런 세상을 향한 복수 혹은 자살에 대한 언급을 시간을 달리하며 표현하였다. 이런 내면적 분노와 공격성을 현실화한 것이 버지니아 텍의 참사였다.

Sigmund Freud는 공격성을 eros와 더불어 인간 본능의 하나인 죽음 (thanatos)의 본능으로 치부하였다. Freud의 후기 이론에 등장하는 죽음의 본능은 죽음과 파괴에 대한 본능으로서 eros의 본능과 상치되며, 자신의 파멸(self-destruction)을 피하기 위해 타인을 공격하는 것이 공격성의 출발점이라고 말한다. Oedipus Complex 혹은 여아의 Electra Complex에서 시작된 아버지 혹은 어머니에 대한 본능적 공격성은 발달 과정, 특히 청소년기로의 진입에 따른 쾌락영역의 이동과 부모가 아닌 이성애로의 탐색을 통해 해소된다. 상담학자 David Augsburger에 따르면 “Eric Fromm을 비롯한 대부분

의 정신분석학자들이 Freud의 죽음에의 본능을 거부하지만 성 본능과 대칭 관계에 있는 “과괴적 본능”은 인정하고 있다.”⁴⁾

행동주의적 관점에서 공격성은 “환경적으로 주입된” 것으로 인정된다. Augsburger는 Yale의 John Dollard를 인용하면서 폭력은 곧 방해(frustration)의 결과로서, 방해가 있는 곳에 언제든지 그에 대응하는 결과가 따른다고 소개한다. 원인에 따라 결과를 추측하도록 의도하는 행동주의 심리학의 특성상 방해의 요소가 공격성을 자극한다는 이론이 의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방해가 반드시 공격적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인간의 공격적 행동은 방해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다. Geen and Berkowitz에 따르면 방해는 비록 공격성과 관련이 있음이 분명하지만 공격성에 대한 매우 미미한 자극(weak instigator of aggression)일 뿐이라고 지적한다.⁵⁾

한편 사회 학습 이론자들은 내적 요인을 관찰하는 인과론적 분석보다는 반응으로서의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영향력들에 관심을 쏟는다. 어린 아이들의 폭력성은 외부의 조건과 모델의 행동을 그대로 배우고 답습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이론이 폭력에 대한 가장 널리 알려진 사회 학습 이론이다. 텔레비전이나 영화 혹은 게임 등을 통해 학습된 폭력이 현실에서 실행되면서 주변의 재강화(reinforcement)나 포상 등의 긍정적 피드백을 받을 경우 폭력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재생산된다. 물론 폭력이 생산되는 과정에 이와 같은 학습의 역할이 매우 큰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다르게 보면 이미 공격성이 전제된 상태에서 사회의 학습은 그 도구 혹은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며, 공격성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학습과 연습은 오히려 내면의 분노가 동기가 되었으며, 분노는 내성적인 조증회의 어린 시절로부터 축적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리학에서 분노는 흔히 이차적인 감정으로 치부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1차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거나 혹은 모종의 두려움이 있을 때에 그런 일차적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대신 이차적 감정인 분노로 표현한다.⁶⁾ 다시 말하면 1차적으로 개인 속에서 경험되는 감정 혹은 인식이 이차적으로 번역

(translated)되면서 분노의 표현으로 이어지는 것이다.⁷⁾ 조승희는 이민 1.5세대로서 특히 중고등학교에서는 그의 수줍은 성격과 친구가 없는 외로움 때문에 무척이나 친구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멸시를 당하였다. 그는 영어를 서툴게 말한다고 친구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되었고, 무지한 친구들은 그에게 “중국으로 돌아가라”고 핀잔을 주었다. 몇몇 친구들은 그에게 비열하게 행동하기도 하고, 친구 관계에서 소외되어 그 자신의 타고난 내성적 성격에 외로움과 분노를 더해 주었으리라 여겨진다. 고등학교 수업시간에는 낙제의 위협에 억지로 책을 읽었고, 책을 읽을 때에는 그의 영어 발음으로 인해 친구들로부터 깔깔거리는 조소를 받았다고 한다.

조승희의 옛 친구들에 따르면 그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건강한 자아 정체성의 형성을 거부당했다.⁸⁾ 그는 내성적 성격과 혼자서 생활하는 소외로 인해 따돌림의 대상이 되었으며, 그것이 청소년기에 조승희 개인에게는 정체성의 형성 과정에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반복되고 축적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8학년이 되었을 때 그는 벌써 콜럼바인을 재현하겠다는(repeat Columbine) 표현으로 학교숙제를 기록하여 정신과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 이렇게 쌓인 그의 분노가 부도덕한 아이들과 부자들에 대한 심판의 상상으로 연결되면서 어쩌면 그의 사적인 분노는 도덕적 형태로 합리화되었을 것이다. 결국 조승희가 충을 겨누고 망치를 들었던 분노의 감정은 겉으로 표현되지 않는 개인의 내부의 심각한 절망과 좌절이 독특한 자신의 인식 과정을 통해 합리화되어 나타난 감정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다.⁹⁾

2. 조승희의 정신적 진단 가능성 I: 사회 공포증(Social Phobia)

정신 분석학의 관점에서 개인의 불안과 내적 갈등은 사회적 요구와 내적 충동 사이에 균형이 형성되지 못할 때 발생한다. 자아가 억압이나 투사 등의 방어기제 등을 사용함으로써 충분히 갈등을 통제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불안이 여러 형태의 증상으로 경험될 수 있다. 여기에는 어

릴 때의 해체 불안(disintegration anxiety)나 거세 불안(castration anxiety)등이 잠재 상태에서 성장후의 불안으로 발달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어머니의 불안을 아이가 모방함으로써 증세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런 불안의 증세 가운데 면박과 조롱을 당했던 조승희의 경험이 떠올리는 한 가지가 사회 공포증이다.

불안 장애로서의 사회 공포증은 한 개인이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당황스러운 상황으로 자신이 행동하게 될까봐 (혹은 그런 불안 증상을 보일까봐) 두려워한다. 대상관계의 관점에서 볼 때 (이들은) 자신을 “부끄럽게 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면박한 부모나 형제자매들의” 재현을 내면화한 사람들이다.¹⁰⁾

한편 미 정신의학회의 표준서인 DSM-IV에서는 사회공포증을 불안의 한 영역에 포함시키고 있다. 여기에서 사회 공포증에서의 상황은 구체적인 인간관계이다. 물론 대상관계 이론은 가까운 가족 관계 안에서의 부정적 경험을 포함하지만, DSM-IV에 따르면 어린 아이들의 경우 “불안이 어른들과의 관계에서만 아니라,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한다.¹¹⁾ 비록 어려서 두려움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은 없을 수도 있지만 낯선 사람들을 만날 때 심각한 불안 증세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사회 공포증과 관련하여 이중범 은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사회 공포증은 인격 발달과 원인적으로 관계가 있다. 일단 환자는 자신이 과거 남들 앞에서 몹시 불안하여 고통스러웠던 사건을 기억하고 그때의 고통스러웠던 경험 때문에 사회적 상황이나 타인 앞에 서는데 대한 공포가 생긴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어떤 타고난 소인과 환경의 스트레스가 합쳐져 사회공포증이 생긴다고 보고 있다. 어떤 아이들은 생소한 것에 대해 지나치게 위축되는 성품과 이로 인하여 억제적인 행동을 보이는 소인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 같은 소인을 타고난 아이에게는...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가해지면 어떤 시기에 이르러 사회공포증이 나타난다고 본다.¹²⁾

조승희 에게는 사회 공포증을 의심케 하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 나타난다. 그는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을 매우 꺼렸으며, 강요에 의해 말을 하거나 발표를 하게 되었을 때에도 친구들의 빈정댐으로 인해 침묵이 더욱 강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¹³⁾ 그렇지만 적어도 글을 쓰는데 있어서 그는 공포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비록 그의 글들이 매우 자극적인 표현들로 가득해 있으나 최소한 글을 통해 내면의 경험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큰 장애가 없었다.¹⁴⁾ 어떤 면에서 그의 회곡들은 자신의 삶의 여러 가지 기억들에 대한 문학적 추구였으며, 그는 자신을 조롱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만성화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었고, 소외의 고통과 내면화된 분노를 쌓아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의 목회 신학자 Donald Capps는 지적하기를 “공황장애나 광장공포증의 환자들과는 달리 사회 공포증 환자들은 자신들의 불안을 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으며, 자신들의 공포를 유발시켰다고 믿는 경험들을 말로 표현할 수 있다” 고 말한다.¹⁵⁾ 조승희가 비난하는 “you”의 내용이 이 증상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Social Anxiety Disorder: A Guide의 공동 저자의 한 사람인 John H. Greist는 사회 공포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¹⁶⁾ :

“사회 공포증의 핵심적인 증상은 한 개인이 다른 사람의 판단을 너무 많이 혹은 너무 적게 받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사회적 상황에서 당황스러움과 업신여김을 겪지나 않을까 걱정하면서, 두드러지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처음 나타나는 것은 청소년기이며, 그 과정에 공통적으로 심각한 우울증이 동반되고, 불안과 우울 증상들을 달래기 위하여 알코올과 다른 약물들이 남용되는 것이 사실이다”¹⁷⁾

사건 전후로 조승희에게서 약물의 영향에 관한 기록은 전혀 보고되지 않았다. 그러나 기존의 사회적 질서가 야기하는 “군림/ 굴종”의 시스템은 사회 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희생 제물로 삼을 수도 있다는 상당한 두려움을 일으킨다. 거기에 굴종하는 것은 자신들의 “체면을 잃는” 것이며, 그로 인하여 생기는 사회 공포증 환자들의 불안한 대비 행동이 그들을 비이

성적인 두려움을 가진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이런 불안은 비이성적일지라도, 그 근거는 현실적 기억이다. 사회 공포증의 “핵심적 증상은 사회적 환경에서의 (자신이 받는) 부정적 평가”이다.¹⁸⁾

사회 공포증 환자는 특별히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 그 그룹의 주된 군림자의 희생자가 될 것이라 믿으며, 그(군림자)들은 자신을 골라 찾아서 놀리고, 혹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게 하고,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사람처럼, 혹은 전혀 영똥한 곳에 와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 것이라 믿고 있다.¹⁹⁾

추측컨대 조승희에게 있어서 군림자가 있었다면 자신을 소수민의 한 사람으로 만드는 미국의 주류나 혹은 과거 따돌렸던 친구들의 집단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의 타고난 내성적 기질과 더불어, 어린 시절 이민으로 인한 문화적 충격과 언어의 장벽은 그로 하여금 위협적인 존재로서의 미국 문화를 경험했을 수도 있고, “Go back to China!”라는 모멸 섞인 다수의 횡포를 경험하면서 자신이 전혀 자신의 세계가 아닌 곳에 와 있음을 자각하였을 것이다. 그를 이해하지 못한 친구나 주변인들이 자신의 그런 인식을 강화시켰고, 그는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들을 심판하리라는 명분을 확신하였던 것이다. 그런 피해의식과 보복을 위한 그의 분노는 영똥하게도 자신이 부자 아이들의 퇴폐한 생활을 심판하리라는 도덕적 형태의 심판자, 혹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의로운 희생자임을 스스로 믿게 하였다. 그의 충격적인 버지니아 텍사 사건은 어쩌면 그의 말할 수 없는 상처와 더불어 이와 같은 비이성적 믿음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3. 조승희의 정신적 진단 가능성 II: 반사회적 성격 장애(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한편, 사회 공포증 환자들의 경우에는 실제 생활에서 그 병적 특징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사회 공포증자들을 외형으로 분별하기는 어려우며, 이들은 극적인 공포를 드라마틱하게 실현하지도 않는다. 또한 불안으로 인해 매사에 소극적이지만 사회적 관계를 원하는 면도 있다.²⁰⁾ 사회 공포증 환자들의 경우 가족 관계나 가까운 친구 관계에서 분별적으로 장애 증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에 비해 반사회적 성격장애자들은 언제나 혼자 있기를 좋아한다. 언제나 외톨이였던 조승희를 반사회적 성격장애자로 진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DSM-IV에 따르면 반사회적 성격 장애자들은 감정적 공감형성을 하지 못하고, 냉소적이거나 차가우며, 다른 사람들의 권리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말한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오만할 정도로 높이 평가를 내리면서 곁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여, 부모인 반사회적 성격 장애자들은 자녀들의 영양 상태를 돌보지 않고, 혹은 결혼의 파트너로서는 무책임한 사람이 되기가 쉽다. 그리고 사고나 자살, 살인 등의 사건에 연루되어 일찍 생명을 잃기 쉬운 특징들도 가지고 있다.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는 도시 환경에서 저소득층의 가정과 연결되어 있기도 하다. 사회 규범에 순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무시하거나 불감증을 가진 경우가 많으며, 남을 속이거나 조종하는 것이 대표적인 증상들이다.

임상 심리학자 Nancy McWilliams는 반사회적 성격장애는 “인간 애착의 기본적 실패”에서 비롯되며, 성격론적 의미에서의 볼 때 겉으로 드러나는 범죄성과는 무관하며 “전적으로 내적 동기(internal motivation)와 관련된 진단”이라 평가한다.²¹⁾ 이런 장애를 가진 이들의 공격성은 선천적이며, 폭력적 흥분의 정도와 관련하여 남다른 특징을 갖는다는 것이 반사회적 인격 장애의 성격이다. 여기서 선천적이라는 말은 또한 유전적 특질을 가리키는 말로서 예를 들어 일란성 쌍둥이에게서 나타나는 범죄의 일치성이 유전적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반사회적 장애야말로 선천성과 환경적 요인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증상이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특히 십대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일관성이 없고 갈등이 잦은 부모의 양육 스타일도 포함된다.²²⁾

McWilliams에 따르면 반사회적 성격 장애자들은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며,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자세히 풀어내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하기보다 행동하는 사람들이며, 혹 느끼는 것이 있다면 맹목적인 분노나 광적인 흥분(manic exhilaration) 등이다. 이런 사람들과는 공감이나 감정의 반향을 통한 관계 형성이 불가능하다. 또한 이들은 행동과 의지에 있어서 도덕적 감각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담자들이 가장 꺼리는 유형의 환자들이기도 하다.

반사회적 성격 장애자들의 특별한 관심이 있다면 “전능자로서의 통제”(omnipotent control)이다. 다른 사람들을 통제 혹은 이용하는데 관심이 있으므로 근본적으로 양심이 결여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인격적 관계가 결핍되어 있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자신의 파워를 과시하는 과정에 무의식적 내용은 존재하지 않으나 말 그대로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행동을 교정하기가 매우 힘들다.²³⁾ 특히 청소년기를 지나 성년기로 들어서는 남성들의 경우 자신의 전능자로서의 파워와 자아에 대한 과대망상은 이들의 지나친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아울러 불안에 대한 감정 해소의 시도가 워낙 빠른 속도로 일어나기 때문에 상담자가 미처 관찰하지 못하는 수가 많아서, 상담자가 보기에 마치 그들에게 평소에는 불안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조승희는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의 반사회적 성격의 특징들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대학에서 적어도 세 차례 이상 여학생들을 스토킹 했다가 대학교 경찰에 의해 두 번의 경고를 받기도 했다. 강의실에서 여학생들의 다리를 촬영하며 그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DSM-IV의 설명과 같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고, 남에게 고통을 준 행동에 대해서는 이성적으로 합리화시킨다. 때로 자신을 돌보는 부모나 혹은 건강한 이들과의 동일시가 불가능할 때, 자신의 권능을 보이는 수단으로 전능자 혹은 구원자와 동일시하기도 한다. 양육에 있어서 부모가 무절제한 방종을 허락할 경우 전능에 대한 그런 자기도취적 믿음은 자녀에게 유전된다. 아울러 조승희는 총기 학살을 통해 자기애적 성향의 연장선상에 서 있는 자신의 공허한 내면을 보

이고 있으나, 자기애적 성향과 거리가 있는 것은 자기애적 성향의 사람들은 텅 빈 자신을 과시하기는 하지만 “전능한 통제”를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승희의 경우, 그 자신의 정신 병력과 독특한 행동에 대개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평범한 이민자인 아버지나 어머니,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접할 수 없다. 분명하지 않으나, 조승희의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는 성실하지만 자녀들과는 정서적으로 거리가 있었으며, 대상 관계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일관성 있고 적절하게 아들의 필요에 응답한 그런 아버지로 보기는 힘든 점들이 많은 것 같다. 반사회적 성격 장애자들의 가정은 “알코올 중독과 약물 중독자들의 가정이 그러하듯, 연약하고 우울하며 피학적인 어머니와, 폭발적이고 일관성 없이 가학적인 아버지들이 관련”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정의 가족들은 서로를 이해하는 의사소통보다는 적은 말로 서로를 지시하고 통제하는데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어떤 평범한 정도로도) 결코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좋은 대상과 연합하거나, 돌보는 이들과 동일시를 이루지도 못한다. 그는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고 사랑을 받은 적도 없다.²⁴⁾

조승희의 경우 그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병원과 교회에 도움을 청한 어머니의 역할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고, 누이와는 좀 더 깊은 감정의 교류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나 대학에 들어가면서 그는 철저히 혼자였고, 심지어 자신을 도우려는 사람들의 마음도 전혀 읽을 수 없었다. 그리고 미국 캠퍼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부모의 학교 방문, 혹은 기숙사 방문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는 감정의 표현이나 공감을 전혀 형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같은 방의 룸메이트들과도 일상의 의사소통을 하지 못했다. 그가 남을 불편하게 하고 위협을 느끼게 했던 행동들은 주로 대학 시절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반사회적 성격의 여러 특징들을 이 시절에 집중적으로 보여

주었다.

다른 한편, 반사회적 성격 장애의 경우 일반적으로 중요한 사람과의 일관성 있는 감정적 유대관계의 결핍이 중요한 요소이며 이런 특징이 조승희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반사회적 장애는 반복적인 반사회적 행동의 동기가 모호한 것이 특징이다.²⁵⁾ 그러나 조승희의 내력을 조금만 살펴보아도 그에게 있었던 행동의 도화선들은 매우 분명하게 드러난다. 아울러 많은 반사회적 성격의 환자들에게 있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작은 규칙들의 위반에는 큰 이유들이 없으며, DSM-IV에서 보듯, 그들의 행동은 충동적이고 사전에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남을 이용하고 교묘히 조종하는 성격과 신체적 폭력이 반복됨으로써 공격성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조승희의 독자적인 치밀한 범행의 계획이나 평소 지극히 내성적인 성격으로 타인과 접촉이 없었던 점에서 일반적인 반사회적 장애와는 차이가 있다.

4. 조승희의 정신적 진단 가능성 Ⅲ: 기타 다른 가능성들

한편 혹자는 또한 조승희의 신경 정신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어린 시절부터의 고정된 스트레스는 뇌 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와서 범죄자들이 한결같이 공유하고 있는 신경 구조적 이상 즉 충동과 일반적 감정을 컨트롤하는 전두엽(frontal lobe)의 안와전두영역(orbitofrontal cortex)이 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연히 정서장애로 이어질 수 있고, 감정이 개입되는 일반적 사회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으며, 정서 불안과 성격 변화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조승희의 신경조직 변화에 대하여 뚜렷한 조사 결과는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 이 사건의 부검을 맡은 William Massello는 조승희의 뇌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한다.²⁶⁾

현재 많은 정신의학자들이나 신문들은 그의 편집증적 성격(paranoia)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일종의 망상장애로서, 이민 환경에서의 고립과 문

화적 적응의 스트레스에서 오는 착란현상이라 할 수 있기에, 조승희의 개인적 환경상 충분히 타당성 있는 설명이라 할 수 있다. 편집증을 따로 이주정 신병(migration psychosis) 이라고 부르는데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자신이 더 이상 조절할 수 없는 깊은 좌절에 대하여 은둔으로 대처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의 행동에 대해 피해 망상적으로 해석하며, 때로는 폭력에 대한 계획을 세우며 시도할 위험도 있다. 아울러 편집증의 정신적 배경에 부모와의 신뢰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점도 이 해석의 개연성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DSM-IV에 따르면 이런 환자의 의심과 과민성은 망상에 근거를 하고 있어서 현실적 근거를 가진 조승희와는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조승희의 경우 처음부터 사람들의 진실함을 의심으로 해석했다기 보다는, 이미 청소년기로부터 학교 친구들의 악의적 놀림과 비방에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었다. 그리고 단순한 망상에서 망상으로 이어지는 정신적 고립의 세계가 아니라, 현실적 고통을 직면함으로 고립, 우울, 불안과 충동성 행동이 더욱 심화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의 형태를 띠고 있다. 물론 자신이 생명의 위협을 당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지라도, 어릴 때 자기 존재의 정체감이 심각히 위협을 받고, 스트레스를 대처할 만한 지지나 애정의 관계를 상실한 채 고립되어 있었다. 청소년기 이후의 상상 속의 여자친구(Jelly, 수퍼 모델)나 자신을 “Cho’s Brother, Question Mark” 라고 소개할 만큼의 망상적 상상력은 자신이 미국 사회에서 외로이 겪어 온 자기의 정체감을 지키기 위해 현실적 위협을 대처하고 사회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자기만의 보호 기제였을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비해 사회 공포증 환자의 경우에는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받은 뚜렷한 고통의 이유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일부는 폭력성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완전한 주목을 받고자 하는 무의식적 욕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라이벌들은 쫓아버리려고 하는 공격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²⁷⁾ 이런 공격성에 대하여 Gabbard는 남자 아이가 엄마의 주목을 받기 위해 아버지 혹은 다른 형제자매와 공격적 경쟁관계에 있을 수 있다는 전통적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개념으로 사회 공포증 환자의 공격성을 설명하고 있

다. 그러나 Freud적 이해는 대상 관계적 관점과 사회경제적 요소를 충분히 설명해 내지 못한다.

이에 비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Capps는 사회 공포증의 공격성이 이런 전통적 개념과 군림/굴종의 사회적 역학 속에서 공격성으로 드러날 수 있다고 말한다. 물론 이런 공격성을 현실적으로 통제하는 내적 기능이 개인과 사회에 존재하고 있지만, 그 근원에는 강렬한 대인관계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 경제적으로 낮은 계층에서 사회 공포증 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자신들의 관계적 소외로 인하여 스스로 낮은 계층과 동일시하는 중상계층 출신의 환자들도 역시 존재한다.²⁸⁾ 정신적으로는 사회적 기대에 있어서 자신들의 성취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불신을 가지고, 자신이 사회에서 받은 상처에 대해서 뚜렷한 사실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²⁹⁾

5. 조승희의 환경적 진단: 미국 이민 가정과 이민 사회의 문화와 병리

조승희에게는 부모와 누이가 있었다. 부모는 여느 한국 출신 재미교포들의 흔한 모습처럼 세탁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누이는 프린스턴을 졸업한 수재로, 신실하게 성경을 공부하던 믿음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그의 누이가 작성한 사과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마음을 진심으로 표현하고 있다.³⁰⁾ 자칫 이 큰 문제의 핵심을 이 가정의 문제로만 호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쩌면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그의 가정은 여느 이민자 가정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가정일 뿐이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그 특별한 아들 때문에 엄청난 비극의 주인공들이 되어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버린 것에 대해 우리는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다만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이 “특별한” 아이에 대하여 가정과 가족들의 케어가 너무 “평범”하지 않았나 하는 점이다. 이렇게 말이 없고 내적으로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아이를 보고, 심지어 “자폐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는 가족 구성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편에서 계속된 관심과 전

문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³¹⁾ 물론 바쁜 이민 생활과, 18세가 되면 독립해 나가는 미국의 독특한 사회 문화가 여기에 기여를 하기도 했다. 학교에서 스토커로 정신과 치료를 권유 받았을 때에 조승희는 전혀 법적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자녀들의 대학을 방문하고 격려하는 미국의 일반 부모들처럼 그 특별한 아이의 학교생활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다면 하는 아쉬움이 여전히 남는다.

반사회적 성향을 가진 어린 아이들의 경우는 “평범하고 쉽게 순응하는 아이들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활기 넘치는 부모의 양육이 필요하다.”³²⁾ 특히 아버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그런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지적이 필요하다. 한편 사회 공포증에 있어서는 아이가 프로그래밍된 모양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지극히 두려워하며 사회 공포증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부모가 그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할 경우 성인 증후군으로서의 사회 공포증은 훨씬 유순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³³⁾ 조승희의 기숙사 동료들의 말에 따르면 1년에 단 한 번도 그의 기숙사 방에 찾아온 손님이 없었다고 이야기한다. 이것은 미국 대학 캠퍼스 문화에서 볼 때 정상적이지 않다. 주말이나 공휴일을 이용하여 부모들이 학교를 방문하거나 혹은 친구들이 찾아와 함께 지내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그것은 조승희에게는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었다고 그의 룸메이트들이 증언한다.

한편 가정에서 장남인 조승희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 역시 그에게는 다문 입을 더욱 굳게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사춘기 이후 아들인 조승희와 거의 대화나 신뢰의 관계를 갖지 못한 어머니가, “딸의 프린스턴 졸업보다 차라리 아들이 프린스턴을 졸업하기를 기대했다”는 말은 아들로서 그가 느꼈을 심리적 부담과 마음의 고통의 일면을 이야기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 말은 딸에게도 역시 고통스러운 것임에 틀림없었을 것이다. 어쩌면 그의 내성적 성격과 친구들에게서의 소외, 심지어 부모의 기대로부터의 좌절이, 내면으로는 절망을 키우고, 가족과의 관계에서조차 더욱 소원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했으리라 짐작한다. 세상을 향해 그가 마지막 찍은 자신의 비디오에도 단 한 마디 자신의 부모나 심지어 자신의 대화 상대였던 누나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는 것을 보면 미국의 개인주의적 환경에서 그의 일상의 소외와 자신에의 고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말해준다. 그의 가정은 자식에 대한 기대나 이민 1세대인 부모의 근면한 생활면에서 지극히 평범한 한국 출신의 미국 이민자 가정이었다. 그러나 부모의 나르시시즘적 기대는 환자인 아들을 병적으로 더욱 심각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가정의 아들은 “평범한” 이민 생활 속에 깊은 상처와 질병을 심각히 앓고 있는 매우 특별한 환자였다.

시스템 이론은 가정에서의 감정적 단절에 대한 일단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맞벌이를 하며 아이에게 “과도한 책임감이나 자율성을 가지게 될” 경우,³⁴⁾ 걸맞지 않는 책임감 때문에 아이는 압박감을 갖게 된다. 한국적 근면성으로 다른 미국인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부모를 보면서, 내성적이고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아들에게 하버드나 프린스턴 대학교를 손가락으로 가리킬 때, 그 아들에게는 심각한 압박감이 있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이 곧 역기능 가족에게서 나타나는 감정의 삼각관계 곧 부모와 아들과 일류대학의 기대가 폐쇄된 삼각구조를 이루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가족 체계 이론의 창시자인 Murray Bowen에 의하면, 이러한 삼각 구조와 개인간 차별화(differentiation)의 실패로 인해 가족 간의 정서가 단절되고, 당사자는 가정의 모든 긴장을 흡수함으로써 우울증이나 기타 중독과 관련된 증상을 앓게 된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이 모든 내면적, 가정적 긴장에 덧붙여 이 사건에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한 것은 중고등학교와 대학에서의 소외와 떠돌림이라 할 수 있다.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스토킹으로, 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자기 언어와 잔인한 희곡으로 구조 요청 신호를 보냈으나, 그의 신호는 거절당했다. 그의 몸짓은 간절한 도움에의 요청이었으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외면과 “이상한 아이”라는 오명뿐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들려지지 않았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주변의 친구들은 중국을 들먹이며 돌아가라고 외쳤다. 그들이 무슨 소리를 하건 그는 모든 소리를 흡수하였으나, 그 내면의 수치와 분노가 환기될 수 있는 대화와 치유의 창구는 굳게 닫혀 있었다. 다만 출구

없는 술에 압력이 올라가듯 내면은 팽창을 하고 있었으나, 주변의 그 누구도 그 위험한 팽창을 알아채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특별한 개인을 더욱 농축된 분노로 몰아가는 모든 사단적(the demonic) 주변 환경 역시 이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DSM-IV에서 말하듯, 어쩌면 그의 행동은 외면상으로는 반사회적 성격 장애의 형태로 나타나면서도 실상은 자신을 보호하면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지극히 정상적인 한 사람의 극단적인 생존 전략이었는데도 모른다.³⁵⁾ 단지 말이 적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것 외에는 나무랄 데 없는 한 아이가, 지독한 사단적 환경으로 인해 소외와 분노를 해소시키지 못한 채 쌓아가면서, 결국은 스스로 더 이상 이런 세상에서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느끼고, 그나마 이 세상에서는 이미 죽어버린 것과 같은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살려보기 위해 최후의 몸부림을 쳤을 거라고 상상하는 것은, 그가 범죄자가 되어버린 지금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위험한 생각일 뿐인가?

6. 조승희 사건의 목회 신학적 진단: 개인의 고통과 자유의 남용

아무리 개인 심리적, 환경적, 사회적 상황을 이해한다고 하여도 무고한 사람을 희생자로 삼았다는 면에서 이 사건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더구나 미래를 위해 꿈꾸며,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하여 성실히 탐구하고 공부해가는 많은 무고한 대학생들이 그의 무차별적인 총기사고에 선별되고 희생되었다는데 대해 우리는 분노하며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다. 비록 과거의 상처가 조승희를 이토록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 모든 불행한 살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그 개인에게 속한다. 비록 심리학이 그의 개인적 환경을 설명해 줄 수는 있지만, 신학은 그에게 선택의 자유의지가 있었음과 그에 따른 책임이 있음을 이야기해 준다. 거기에는 악이 존재하는 과거의 환경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상해하려고 사전에 계획하고 실행한 심각한 죄가 존재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신학에서만 아니라, 심리학적 통계에서도 의미 있는 사실

이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의 아동 학대의 경험이 어른이 되고 나서 반사회적 성격장애의 증상을 예고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병의 원인이 피해자는 가해자가 된다는 단순한 형식으로 축소될 수 없기” 때문이다.³⁶⁾ 피해자로서의 경험이 반드시 가해자로 이어지지 않는다. 심리학적 결정론은 내적, 환경적 요인에만 관심을 두지만, 거기에는 개인의 의지적 결단이 반드시 함께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런 불행한 과거의 경험을 구속(redemption)하여 개개인을 새롭게 하는 새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한편 한 개인의 공격성을 예견하는 전조적(predisposing) 환경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Freud나 Konrad Lorenz가 생각하듯 인간의 본능과 생리 자체에서 비롯되는 생존 도구로서의 공격성이 강조되다 보면 여기에는 신학이 말하는 인간의 선택의 자유가 상실될 수밖에 없다.³⁷⁾ 행동주의 심리학적 의미에서도 방해가 공격성을 반드시 가져오는 것도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인간은 더 이상 윤리적인 존재도, 혹은 신학적인 존재도 될 수 없고, 오직 어린 시절의 학대나 결핍의 원인에 따라 병리적 결과를 드러내는 갇힌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구약 성경에서 살인죄 판결의 핵심은 우발적인가 미리 계획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우발적인 살인의 경우에 살인자가 피해자 가족의 손에 희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도피성을 준비해 놓았다.³⁸⁾

그러나 조승희 사건의 경우에는 살인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되고 훈련된 살인이었다는 점에서 과실치사와 거리가 멀다. 개인적 심리 상태의 불안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참작이 된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이 참담한 학교 학살의 범인이다. 가인이 시기심에서 동생 아벨을 죽인 데 대해 죄책을 지게 된 것처럼 이 사건은 분명 사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책임이 있는 살인행위이다. Augustine은 그의 참회록(*The Confessions*)에서,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행위는 말할 것도 없고, 비록 관습으로는 허용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어린 아이 때의 모르고 반복적으로 행한 일까지도 죄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그에게서 인간악의 근원은 인간 “스스로가 짊어진 의지의 과격한 속박”이며, 죄의 뿌리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것이라 말한다.³⁹⁾ Augustine에게 죄는 “스스로 짊어진 자유의 오염이며 하나님으로부터의 불

순종적 배반이다.”⁴⁰⁾ 그러나 불순종하는 구체적인 행동들은 죄의 근원이 아니라 죄의 결과요 열매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오용한 죄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목회 신학과 상담학에 있어서 심리학적 요소가 가미되면서 인간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분위기는 상당히 완화되었다. 심리학적 지식이 돌보는 일과 상담에 있어서 도덕화하는 경향을 교정하도록 하였다.⁴¹⁾ 종교적 의미에서 정죄와 판단이 목회 상담에서는 상당부분 보류되었고, 죄라는 용어의 사용도 드물어졌다. 거기에는 심리학자 Carl Rogers의 낙관론적 인본주의의 영향도 컸다. 그러나 교리적 의미와 선지자적 선포에 있어서 죄의 개념은 여전히 교회의 실천적 일상에서 사용된다. 그리고 그 개념을 제거하고서 기독교를 말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사람을 이해하고 진단된 그대로 용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죄를 죄라 하지 않고 용서와 자유를 이야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몇몇 미국인들이 조승희의 추모비에 이해와 용서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그것은 매우 개인적인 선택들이며, 문화를 막론하고, 피해자들의 눈물이 마르지 않은 가운데서의 가해자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은 제대로 익지 않은 풋과일을 먹기 원하는 것과 같다. 거기에 현대 목회 신학이 추구하는 바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한 공의가 세워질 수 없다.

목회 신학자 Nancy Ramsay가 이야기하듯,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자유는 건강하지 못한 가정 구조나 개인의 정신 병력에 의해 소진되는 것이 아니다.”⁴²⁾ 다른 말로 하면, 과거에 경험한 결손가정의 결핍과 정신병적 증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을 성희롱 했다는 결정론적 변명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스스로 선택한 행동에 대하여 그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 왜냐하면 비록 과거에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이 개인에게 있기 때문이다. 비록 John Calvin은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선을 선택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구원을 얻는데 필요한 선에 대한 것이며, 일반계시의 영역에서 인간은 여전히 잔존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공적 질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물론 심각한 정신장애를 겪는 사람의 범죄는 특별한 고려의 대상이 되기도 한

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필요를 만족시키고 극대화 시키는 죄의 본성을 자신의 결핍의 기억에 기대어 합리화시킬 수 있을 만큼 오염된 의지를 가진 것이 사실이다. 한 개인이 어린 시절 심리적 결핍을 성장 후의 반사회적 공격성으로 이어가는 것은 결정론적 관계가 아니라 그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것이며,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그 자신에게 주어진다.

그렇지만 목회 신학의 관점에서 조승희의 성장에서의 결핍을 방치한 환경적 요인들 역시 지적 받고 교정되어야 마땅하다. 20세기 초반, Anton Boisen 목사는 목회자들이 객관적인 신학적 용어만 아니라, 영적, 정신적으로 갈등하는 “살아있는 인간의 경험 문서(the living human document)”를 진지하게 연구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로 인하여 20세기에 나타난 목회신학의 발전은 인간 경험에 대한 관찰을 기초로 큰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20세기 말에 이르러 목회 신학자인 Bonnie Miller-McLemore를 비롯한 일단의 목회 신학자들은 개인의 치유가 정치, 문화, 경제적 요소들에 의해 제한됨을 인식하고 소외, 약탈, 다양성, 정의의 실현에 관심을 가지는 새로운 패러다임 곧 “살아있는 인간의 관계적 환경(the living human web)”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것은 곧 개인의 전인적이고 온전한 치유를 위하여 한 사람을 둘러싼 사회 구조적 치유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함을 뜻한다.⁴³⁾ 그것이야말로 제이, 제 삼의 조승희를 치유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온전함을 회복,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그가 시도한 자신의 구속(redemption)은 남을 처벌함으로써 세상을 구속한다는 부패한 인간의 메시아 주의를 대변한다. 이는 곧 자기 우상이며, 자신의 전능함을 과시하는 죄의 한 형태이다. 반사회적 성향을 가진 청소년의 경우 일상적인 과정을 통해 자아 존재감을 확인할 수 없을 때, 결국 의존하게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사적으로 조성한 파워이며, 결핍된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하여 공격적이고 가학적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⁴⁴⁾ 이것은 결핍된 자존감을 가진 피해자의 절박한 도움의 호소임과 동시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자신의 필요를 절대화하는 본능적인 행동이다. 자유를 남용하여 자신의 필요를 절대화하고 동시에 타인에게 상처

를 가함으로써 얻는 자기 회복은 결국 “거짓된 자아 안전이며, 이 같은 죄의 속박은 결국 하나님 사랑, 자기(사랑), 그리고 이웃(사랑)을 위한 역량을 실현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⁴⁵⁾

Ⅲ. 닫는 글

앞서 살펴보았듯이 조승희 사건을 둘러싼 원인 이해는 단순히 한 증상만 가지고 말을 하기에는 매우 복잡한 개인적, 관계적,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 그는 매사에 소극적이었지만, 공포의 원인이 분명하게 알려질 수 있는 사회 공포증 혹은 사회 불안의 증상을 분명히 보이고 있다. 그러나 또한 언제나 혼자 있기를 좋아하며, 전능한 통제력을 가지려 했다는 의미에서 반사회적 성격도 드러내고 있다. 다만 즉 반사회성을 위해서는 15세 이전의 행동 장애(Conduct Disorder)에 대한 데이터, 곧 동물에 대한 공격성이나 거짓말, 도둑질 등의 규칙 위반 대신 그는 줄곧 피동적이고 내면으로 분노를 숨기는 청소년기를 보냈다. 불행하게도 그의 분노는 해소되지 못하고 마지막 대참변을 예고하며 점점 쌓여만 가고 있었고, 그가 처한 독특하고 외로운 미국 이민의 환경이 이를 가속화 시켰다.

이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증상을 상담자들은 도울 수 있는가? McWilliams에 따르면 반사회적 성격 장애의 경우 상담자들이 환자로부터 사랑을 얻기는 힘들지만 최소한의 존중은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녀는 특히 무조건적 사랑이나 용납보다는 분명하고 굽히지 않는 규칙의 준수를 중요한 치료의 방편으로 사용하였다. 어떤 사정도 예외를 두지 않고, 특히 의사표현이나 약속 준수에 있어서 현실적 원리를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요구함으로써 환자가 현실을 직시하도록 도왔다. 이런 현실의 직시를 통해 환자는 양심을 회복하도록 대면해야 한다. 가장 어려운 환자라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조승희와 같은 환자라면 상담자들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종류의 환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감정의 공감이나 반향이 전혀 먹혀들지 않

는 관계가 상담자에게 쉬울 리가 없다. 그러나 그럴수록 상담자의 중요성은 커진다.

아울러 기독교 상담자의 지평은 개인과 관계의 진단만 아니라, 그가 처한 사회 문화적 구조와 환경에 대한 치유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개인의 치유는 관계의 치유와 긴밀히 연결되며, 관계의 치유는 사회 문화적 가치관의 치유와 병행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앞서 제시한 모든 정신병적 가능성 즉 편집증, 반사회성, 혹은 사회 공포증 그 모든 것의 공통분모가 될 수 있는 것이 가장 가까운 부모와의 정서적 교감의 결핍이다.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들이 현대 생활에서 간과될 때 가정과 사회가 함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복음주의적 상담학은 성경의 진리 안에서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고, 한 개인을 둘러싼 가정적, 사회적 환경을 회복하도록 도움으로써 개인의 구원과 더불어 사회적 공의의 회복을 통한 전인의 치유를 바랐던 목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강문희, 박경, 강혜련, 김혜련. 『가족 상담 및 심리 치료』. 서울: 신정, 2006.
민성길. 『최신정신의학』. 서울: 일조각, 1999.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ourth Editio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Augsburger, David W. "Anger and Aggression," *Clinical Handbook of Pastoral Counseling*, Vol.1, Robert J Wicks, Richard D. Parsons, Donald Capps, (ed.) New York: Paulist, 1993.
Bagby, D. G. "Anger" *Dictionary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Nashville: Abingdon, 1990.
Capps, Donald. *Social Phobia: Alleviating Anxiety in an Age of Self-promotion*. St. Louis: Chalice Press, 1999.
Chapman, T. F. *Social Phobia: Diagnosis Assessment and Treatment*. New York: Guilford, 1995.

- Farley, Edward. "Sin/Sins," *Dictionary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Rodney Hunter. (ed.) Nashville: Abingdon, 1991.
- Gabbard, Glen O. *Psychodynamic Psychiatry*.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2000.
- Geen, R. G. & L. Berkowitz. "Some Conditions Facilitating the Occurrence of Aggression after the Observation of Violence." *Journal of Personality* (Dec. 1967):566-76.
- Greist, John H. "The Diagnosis of Social Phobia."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1995): 5-12.
- Greist, John H., James W. Jefferson & David J. Katzelnick. *Social Anxiety Disorder: A Guide*. Madison WI.: Information Center, Madison Institute of Medicine, 2000.
- McWilliams, Nancy. *Psychoanalytic Diagnosis: Understanding Personality Structure in the Clinical Process*. New York: Guilford, 1994.
- . *Psychoanalytic Case Formulation*. New York: Guilford, 1999.
- Ramsay, Nancy. *Pastoral Diagnosis: A Resource for Ministries of Care and Counseling*. Minneapolis: Fortress, 1999.

[후주]

- 1) 2007년 9월과 10월 사이 Washington Post에 조승희의 이름이 등장하는 기사만 해도 33개에 이르며, 대부분 총기 관리 정책이나 정신병력을 가진 개인에 대한 총기 사용 규제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거의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들에 한 번 꼴로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 기사가 나오는 것은 현저에서의 사회적, 심리적 후유증이 얼마나 큰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 2) http://en.wikipedia.org/wiki/Seung-Hui_Cho
- 3) 이스마엘 액스의 두 가지 큰 의미는 이스마엘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상타파와 제임스 페니모어 쿠퍼의 소설 '대평원(The Prairie)'에 나오는 등장 인물 이스마엘 부시로서, 대평원을 넘어 문명 탈출을 시도하는 주인공이 도끼로 살인 및 파괴와 주거지를 세우는 창조적 행동을 의미하는 상징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2007년 4월 21일 워싱턴포스트 기사에 등장한 심리전문가 토드 콕스 교수는 "복잡한 정신 이상자의 사고 속에서 너무 많은 의미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지난 수 십 년간 정신의학은 밑에 깔린 상징을 찾아내기 위해서 길을 헤맸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분석 기사의 마지막에 "이스마엘 액스는 아무것도 나타내지 않는다. 상징주의는 별 가치 없는 것"이라며 "비디오에서 조씨는 자신을 모세와 예수에 비교했다, 그래서 어쨌든 말인가"라고 끝을 맺었다.

- 4) David W. Augsburger, "Anger and Aggression," *Clinical Handbook of Pastoral Counseling, Vol.1*, Robert J Wicks, Richard D. Parsons, Donald Capps, (ed.) (New York: Paulist, 1993), 483.
- 5) Geen, R. G. & Berkowitz, L. "Some conditions facilitating the occurrence of aggression after the observation of violence," *Journal of Personality* (Dec. 1967): 566-76.
- 6) 먼저 Emile Kraepelin이나 Freud로부터 DSM-IV에 이르기까지 분노는 우울증 혹은 다른 충동 장애 등에 이어서 부차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경험일 뿐 주요한 성격 장애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와 같은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분노는 경험상 개인의 기능과 사회관계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말할 수 있다.
- 7) D. G. Bagby에 따르면 분노의 표현이란 단순히 주어진 어떤 사건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주어진 상황에 대한 개인의 인지 혹은 해석의 결과"라고 말한다. 조승희 사건의 경우 흔히 추측하듯 개인적 연애 감정으로 인한 갑작스런 분노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내성적 성격의 소유자로서, 그리고 소수 민족 출신의 이민자로서의 종합적 경험에 대한 개인적 해석과 분노의 결과로 여겨진다.
- 8) 한 문학 강좌에서 조승희는 자신의 이름을 적는 대신 "?"를 적어서 동료들은 그를 "물음표 아이(the question mark kid)"로 기억했다. 이후에 그는 자신이 집착했던 여학생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에는 "조의 형제, 물음표 Cho's Brother Question Mark"라고 스스로 불렀다.
- 9) 심리 치료자요 저술가인 Nancy McWilliams에 따르면 때로 환자들의 분노는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라는 질문으로 해소되기에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런 환자들의 분노는 McDougall이 명명하듯, "정신병적 증상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 즉 자아 정체감의 상실의 위험이나 미치게 되는 정신적 파열"의 경험이기 때문이다. Nancy McWilliams, *Psychoanalytic Case Formulation* (New York: Guilford, 1999), 112.
- 10) Glen O. Gabbard, *Psychodynamic Psychiatry*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2000), 246.
- 11)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ourth Editio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416.
- 12) 민성길, 『최신정신의학』(서울: 일조각, 1999), 310.
- 13) 조승희의 가족들은 어린 시절 그가 자폐증을 앓고 있다고 믿었으나, 2007년 8월 20일자 Wall Street Journal에 의하면 그가 선택적 침묵증(selective mutism)과 사회 불안 증 진단을 받은 적 있다고 보도했다.
- 14) 버지니아 텍의 희곡작가이자 교수인 Edward Falco는 조승희의 희곡이 비록 좋은 글은 아니지만 말로 표현하는 것이 어려운 그에게는 그 희곡 또한 자신을 위한 의사소통의 수단이었다고 지적한다.
- 15) Donald Capps, *Social Phobia: Alleviating Anxiety in an Age of Self-promotion* (St. Louis: Chalice, 1999), 13.
- 16) John H. Greist, James W. Jefferson & David J. Katzelnick, *Social Anxiety Disorder: A Guide*, (Madison WI.: Information Center, Madison Institute of Medicine, 2000).
- 17) John H. Greist, "The Diagnosis of Social Phobia,"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1995): 5-12.

- 18) Donald Capps, *Social Phobia: Alleviating Anxiety in an Age of Self-promotion* (St. Louis: Chalice Press, 1999), 4.
- 19) Capps, *Social Phobia*, 11.
- 20) Capps, *Social Phobia*, 4.
- 21) Nancy McWilliams, *Psychoanalytic Diagnosis: Understanding Personality Structure in the Clinical Process* (New York: Guilford, 1994), 151-52.
- 22) Gabbard, *Psychodynamic Psychiatry*, 495-96.
- 23) McWilliams, *Psychoanalytic Diagnosis*, 153.
- 24) McWilliams, *Psychoanalytic Diagnosis*, 156.
- 25) 민성길, 『최신정신의학』, 362.
- 26) The Washington Post, 2007. 4. 23.
- 27) Capps, *Social Phobia*, 114.
- 28) T. F. Chapman, *Social Phobia: Diagnosis Assessment and Treatment* (New York: Guilford, 1995), 63-93.
- 29) Capps, *Social Phobia*, 61.
- 30) 그의 누나 조선경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가족을 대표하여 마음 깊은 사죄를 하였다. “이 아이가 바로 제가 함께 자라고 사랑했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제 동생이 이처럼 엄청난 사건을 저지를 줄은 미처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 31) 2006년까지도 사실은 어머니와 더불어 버지니아 지역의 한인교회들을 다니며 도움을 구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증상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이 교회들이 줄 수 있는 도움은 제한되어 있었다.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그가 귀신에 들렸으므로 거기서 구원받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 32) McWilliams, *Psychoanalytic Diagnosis*, 157.
- 33) Gabbard, *Psychodynamic Psychiatry*, 246.
- 34) 강문희 외, 『가족 상담 및 심리 치료』(서울: 신정, 2006), 35.
- 35)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ourth Editio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647.
- 36) Gabbard, *Psychodynamic Psychiatry*, 497. 저자는 한 연구를 인용하면서 학대 혹은 유기당한 어린이들의 86%는 반사회적 성격으로 자라지 않는다고 말하며, 7%는 학대나 유기 기록이 없어도 반사회성을 가지게 된다고 진술한다.
- 37) Lorenz는 본능적 공격성의 경우 다윈의 진화론적 관점과 더불어, 공격적 개체가 연약한 개체를 누르고 존속함으로써 오히려 종의 진화에 유익을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의 공격성의 원인은 전적으로 유전적, 혹은 화학적 작용일 뿐이다. <http://serendip.brynmawr.edu/bb/neuro/neuro99/web3/Smith.html> Alexandra K. Smith, “Theories of Aggression”
- 38) 여호수아 20장 7절-8절에서는 요단 강 동편에 세 곳(베셀, 길르앗 라못, 골란), 그리고 요단 강 서편에 세 곳(게데스, 세겜, 헤브론)의 도피성이 준비되었으며, 여기에 피해야 할 사람들은 과실치사로 인한 살인자들이었다. 그들을 위하여 길도 준비되었고, 과실사고가 인정될 경우 그 성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주거가 제공되었다. 이런 도피성이 구속사의 관점에서는 장차 영원한 인류의 도피성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

키는 모형이 되기도 한다.

- 39) Nancy Ramsay, *Pastoral Diagnosis: A Resource for Ministries of Care and Counseling* (Minneapolis: Fortress, 1999), 150.
- 40) Ramsay, *Pastoral Diagnosis: A Resource for Ministries of Care and Counseling*, 151.
- 41) Edward Farley, "Sin/Sins," *Dictionary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Rodney Hunter, (ed.) (Nashville: Abingdon, 1991), 1175.
- 42) Ramsay, *Pastoral Diagnosis: A Resource for Ministries of Care and Counseling*, 147.
- 43) 여기에는 미국 사회에서의 인종적 다양성에 대한 편견과 함께, 미국 사회의 구조악이라 할 수 있는 총기협회(NRA)의 그릇된 영향력도 포함된다. 총기협회는 이 사건을 두고 해석하기를 "대학생들이 스스로 총기로 무장하여 자신을 방어할 수 없어서 사건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런 그릇된 자본주의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사건이 날 때 마다 이들의 강력한 로비에 의해 문제의 초점은 지속적으로 흐트러지고 있다.
- 44) McWilliams, *Psychoanalytic Diagnosis*, 157-58.
- 45) Ramsay, *Pastoral Diagnosis: A Resource for Ministries of Care and Counseling*, 159.

【 Abstract 】

A Pastoral Theological Reflection of Virginia Tech Massacre:
Analysis of Seung-Hui Cho's Individual and Relational
Environments.

Ha Jae Sung
(Korea Theological Seminary)

Seung-Hui Cho murdered 32 innocent people, leaving 25 wounded, in Virginia Tech massacre. Who was Cho and what made this terrible rampage happen? He demonstrated extreme shyness in childhood, and he seemed to have stored devastating anger in adolescence. His unique personality and a new environment as an immigrant conjointly contributed to the dreadful killings.

Cho showed psychological traits of both social phobia and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He had history of receiving therapy because of his unusual behaviors and thoughts. Social anxiety aggravated his inability in public speaking, which in turn collected peers' mocking. Humiliation and fear deepened his anxiety, and he was well aware of its causes clearly as other social phobics do. On the other hand, his mischievous behaviors on campus may explain a possible diagnosis of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His aggression that was eventually realized in fact was previously organized and carefully planned, which is distinctive from those with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In addition to his individual troubles, he experienced serious social isolation at school and even in his family.

Pastoral theology points to both his individual problems and his social environments. Theological reflections of his case swing in ambivalence between two poles: his life as a victim and his killing of innocent people as a criminal. He had once been abused and now he abused other people's rights as well as his own freedom of conscience. Therefore, pastoral theologians and counselors must understand the need of individual redemption and social reformation for a Christian healing through this incident.

Key words: Seung-Hui Cho, aggression, social phobia,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pastoral theology